

몽골의 광업부문 현황과 전망

1. 광업부문의 개요

□ 광물 매장량 기준 세계 10위, 국내총생산의 30.3% 차지

- 광업은 경제의 주축으로 국내총생산의 30.3%, 총 산업생산의 65.5%, 총 수출의 88.2%를 차지함.
- 세계 10위 광물자원부국으로 석탄 1,750억 톤, 동 5,500만 톤, 우라늄 6만 3,000 톤 등을 보유하고 있음.
- 2006년에는 탐사지출 총 2억 8,520만 달러로 전 세계 탐사지출(71억 3,000달러)의 4%에 이르는 등 세계 10대 광물탐사 지역으로 부상하였음.
- 현재까지 발견된 광물은 총 80여 종으로 주요 광물은 석탄, 동, 형석, 금, 철, 납, 몰리브덴, 은, 텅스텐, 우라늄 및 아연 등이 있음.

<표 1> 광업의 연도별 국내총생산, 총 산업생산 및 수출 대비 비중

(단위: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국 내 총 생 산	17.3	18.0	30.0	29.5	28.2	30.3
총 산 업 생 산	64.7	65.5	68.4	67.8	64.3	65.5
총 수 출	70.8	75.8	76.0	78.8	80.7	88.2

자료 : Mongolian Investment Seeking Projects, 2010

□ 광산개발과 수송인프라 투자유치에 적극적

- 현재 총 15개의 전략광산¹⁾을 지정하여 광산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생산된 광물자원의 수송을 위해 철도·도로 등의 인프라를 건설 중에 있음.
 - 최근 오유틀고이 동·금 광산, 타반톨고이 석탄 광산 등 다수의 광산개발안이 추진 중에 있고, 관련 수송인프라에 대한 개발이 더욱 활기를 띠 전망
- ※ 오유틀고이에는 동과 금이 각 2,540만 톤, 1,028톤이 매장되어있고, 타반톨고이에는 석탄 65억 톤이 매장
- 이 외에도 에데네트(동·몰리브덴), 보로(금), 토모테이(철) 광산 개발안이 추진 중에 있으며, 금·은·동과 같은 광물자원 탐사를 위한 다수의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음.
 - 정부는 이를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음. 특히, 탐사, 채광 및 광물자원의 가공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
- 한편, 열악한 수송인프라는 광산개발의 주요 장애요소로 몽골의 교역이 증대됨에 따라, 인프라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철도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남부 고비지역의 광산개발로 현재 중국, 일본, 한국 기업들이 사업계획안을 제출한 상태임.
- ※ 이 외에도 정부는 2021년까지 고비지역과 동부지역간, 전략광산들과 기존 간선철도간, 제2 간선철도 건설 등 철도라인을 확충할 예정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

1) 수요가 많은 광종을 보유하고 국가안보와 국가·지역경제·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광산으로서 연간 생산규모가 GDP의 5% 이상인 광산을 지칭. 15개의 전략광산으로는 오유틀고이(Oyu Tolgoi) 동·금, 타반톨고이(Tavan Tolgoi) 석탄, 토모테이(Tomortei) 철, 보로(Borro) 금, 도르노드, 마다이, 거반블라그(Dornod, Mardai, Gurvan Bulag) 우라늄, 나린 수카이트(Nariin Sukhait) 석탄, 바가눌, 시비오브(Baganuur, Shivee Ovoo) 갈탄, 차간수바가, 에데네트(Tsagaan Suvarga, Erdenet) 동·몰리브덴, 부렌칸(Burenkhaan) 인, 토모테이오브(Tomortei Ovoo) 아연, 아스갯(Asgat) 은 광산이 있음.

- 또한 다수의 도로건설 사업이 국제개발금융기관, 외국인투자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음. 향후 몽-중-러간, 몽골의 대도시간 도로가 연결되면 비용과 시간이 단축되는 등 물류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

2. 생산과 수출 현황

□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낮은 광물가격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수출 증대

- 2009년 중 몽골의 광업은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원자재 수요감소와 가격 하락에 따라 큰 타격을 받았으나, 중국, 인도 등으로부터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자 석탄과 석유 등의 광물생산을 확대하였음.

- 2009년 석탄과 석유생산은 전년 대비 각각 12.8%, 159.3% 증가하였고, 폴리브덴(정광), 형석(야금)도 전년 대비 각각 22.6%, 34.7% 증가

※ 2009년 총 산업생산 중 광업 65.5%, 제조업 24.7%, 전기·열에너지(난방 및 온수)·수도 9.8%로 광업의 비중이 절대적

<표 2>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 및 생산량

		연도별 생산량			비고
		2007년	2008년	2009년	
석탄(천 톤)		9,238	9,692	10,936	- 매장량(1,750억 톤) 기준 세계 제4위
동(천 톤) ¹⁾	정광 ²⁾	130	127	117	- 매장량(5,500만 톤) 기준 세계 제2위 - 세계 동정광의 0.8% 공급
	전기동 ²⁾	3	2.6	2.3	- 몽골수출액의 33%
폴리브덴(천 톤)	정광 ²⁾	1,978	1,784	2,187	- 매장량(3만 톤) 기준 세계 제11위
	산화 폴리브덴	2,664	2,112	157	- 생산 세계 제9위
형석(천 톤)	산성 등급	110	116	104	- 매장량(1,200만 톤) 기준 세계 제3위
	야금 ³⁾ 등급	245	219	295	- 생산 세계 제3위
우라늄		-	-	-	- 매장량(6만 3,000톤) 기준 세계 제14위 - 구소련 시절 생산, 현재는 중단 상태
석유(천배럴)		833	1,126	2,920	- 생산원유는 모두 중국으로 수출 - 탐사확대를 추진 중 - 매장량 45억 배럴

금(Kg) ¹⁾	18,087	15,184	9,148	- 몽골 수출액의 24% - 매장량 3,000톤
---------------------	--------	--------	-------	-------------------------------

주: 1) 오유톨고이 광산 매장량(동: 2,540만 톤, 금: 1,028톤) 미 포함

- 2) 정광은 선광 작업으로, 잡성분이 제거되고 유용 성분의 함유율이 높아진 광물, 전기동은 전해 동
- 3) 야금은 광석에서 쇠붙이를 골라내거나 합금을 한 광물

자료 : 광물자원부, 통계청

- 2009년 생산량과 수출량이 모두 확대되었으나, 세계 광물가격하락으로 수출액은 감소하였음. 그러나 2009년 중반 이후 광물가격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2010년에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금, 동, 석탄, 형석, 아연, 철광석 및 텅스텐을 생산해 거의 모든 광물자원을 외부로 수출하고 있음.
 - 2009년 전체 수출액(19억 300만 달러)에서 동은 26.3%(5억 달러), 금은 17.9%(3억 4,000만 달러), 유연탄은 15.8%(3억 달러)를 차지하는 등 수출의 60%에 이르며, 이중 동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가장 큼
 - ※ 동, 몰리브덴, 석탄, 아연은 중국으로, 형석은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 금은 캐나다, 미국, 영국 및 중국으로 수출
- 한편, 원유를 생산하고 있지만 정제시설의 미비로 생산된 원유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석유제품의 대부분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최근 정부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고비쑤메르 아이막²⁾(Gobisumber aimag)의 초이르(Choir)에 총 9억 달러 규모의 정유시설 건설을 추진중
 - 이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석유수입 의존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

2) 행정구역은 21개의 아이막(aimag)과 그 하위분류 단위인 315개의 쑤(sum)으로 구분. 아이막과 쑤는 각각 우리나라의 도(道)와 시(市)에 해당됨.

<표 3>

주요 광물의 수출현황

	2008년		2009년		전년동기 대비(%)	
	수출량	수출액 (천 달러)	수출량	수출액 (천 달러)	수출량	수출액
금(톤)	22	599,883	12	335,909	-88.3	-44.0
동정광(천 톤)	583	835,666	587	501,846	0.7	-39.9
몰리브덴(천 톤)	4	82,344	7	52,660	65.9	-36.0
산화몰리브덴(톤)	733	26,202	-	-		
형석(천 톤)	349	59,197	147	29,660	-57.9	-49.9
철광석(천 톤)	1,013	92,285	1,576	86,675	55.6	-6.1
아연(천 톤)	138	154,617	151	122,494	9.6	-20.8
제련동, 동합금(톤)	2,604	18,526	2,321	11,850	-10.9	-36.0
고철(톤)	859	351	656	140	-23.6	-60.1
석탄(천 톤)	4,169	184,666	7,087	305,142	70.0	65.2
원유(천 배럴)	1,059	101,937	1,919	114,278	81.3	12.1

자료 : 광물자원부, 통계청

3. 외국인투자 현황과 정부정책

□ 외국인투자 규제완화와 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투자 증가

- 2008년 이후 광업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대되었음.
 - 정부는 법인세, 초과이윤세, 부가가치세 등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등 각종 법률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
- 광업부문에 대한 육성정책으로 외국인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투자 비중은 중국 66.8%, 캐나다 14.5%, 러시아 3.7%, 미국 1.7%, 한국 1.2% 및 기타 12.1%로 중국의 투자가 대부분임.
 - 외국인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광물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

- 또한 외국인투자를 통해 기술이전, 사업관련 지식 및 경험, 관리능력 등을 취득하여, 중소기업의 채광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

□ 세금제도 개선을 통한 외국인투자 증대 기대

- 동과 금에 부과되는 초과이윤세는 2006년 6월 도입되었으나, 지난 2008년 11월에 개정되었음.
 - 2006년 당시 금, 동 가격이 각각 톤당 500달러, 2,600달러 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68%의 초과이윤세 부과
 - 그러나 2008년에 금, 동 가격이 각각 톤당 850달러, 2,600달러 이상일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 투자환경이 개선 된 것으로 평가
 - 또한 정부는 최근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서 초과이윤세 제도를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법안을 통과
- 이 외에도, 정부는 2008년 이후 건설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와 광물자원에 대한 면세 등을 도입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음.

<표 4> 광물자원 부문에 대한 세금제도

(단위: %)

	2003년	2004년	2006년	2008년
법 인 세	15~40	15~30	15~30	10~25
수입 광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0	0	0	0
사 용 료 (석 탄)	2.5	2.5	2.5	2.5
사 용 료 (기 타 광 물)	7.5	7.5	7.5	5
초 과 이 윤 세 (금 , 동)	0	0	68	68
금 생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0	0	0	0

자료 : Investors' Guide to Mongolia, 2009

□ 광업중심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정책 강화

- 2008~12년 주요 광업정책은 1) 지질학 정보시스템의 구축, 2) 광물기금 증대, 3) 대규모 광산의 초기개발 추진, 4) 중소기업의 제조산업 육성, 5)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이며, 이를 통해 내수시장 확대, 광업산업 육성 및 수출 증대를 이룩하고자 함.
 - 향후 정부는 전략광산 사업을 추진하고 광업부문의 법률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일정비율의 지분을 공공부문에 배분할 예정
 - 또 광업과 연계된 중소기업의 제조기업 육성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 한편, 광물정책의 핵심은 정부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임.
 - 광물법은 지난 2006년 7월에 개정된 바 있으며 원유, 천연가스를 제외한 광물 자원 개발과 관련된 법률로 주로 몽골 정부의 지분한도 보장과 재정수입 증대를 도모
 - 석유법은 1991년에 제정되었고 주로 석유개발 시의 생산물분배계약³⁾ 체결에 관한 내용
 - ※ 석유 개발사업자는 개발 이전에 반드시 정부와 생산분배계약을 체결해야 개발이 가능

4. 전망

□ 광물자원 가격상승과 수요증가로 경제회복세 전환 기대

- 농·목축업 및 광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세계 경제침체에 따른 광물자원 가격 하락과 수출둔화로 2009년도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1.6%를 기록하였음. 최근 주요 수출품인 동·금 가격 상승과 광물자원 수요 증가 및 중국과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2010년에는 연 8% 이상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3) 지하자원을 소유한 국가와 외국인투자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자원을 소유한 국가와 투자자 간 일정 비율에 따라 이익(생산물에서 투자자가 자원개발을 위해 투입한 일체의 비용을 차감한 생산물)을 나누는 계약

- 그러나, 긍정적인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일부 상업은행의 파산, 자연 재해로 인한 농업부문의 부진 및 개인소비 감소 등은 단기적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

○ 광업중심의 산업·경제발전 개발 추진, 주요 광산을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 및 외국인투자 규제완화 등에 힘입어, 향후 광업부문에 대한 생산과 수출이 증대되고 외국인투자가 더욱 확대되는 등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따라 2010년에는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확대에 힘입은 경제성장이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도 광업을 중심으로 성장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자원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 광업과 인프라부문 등에 대한 관심 지속적 증대

○ 최근 석탄, 금·동 가격이 상승하고 중국, 인도 등 개도국 자원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중국과 러시아는 몽골에너지(광물)자원의 최대수요자이자 투자자임. 몽골정부는 이들 국가에게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제공하는 한편, 광산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의 프로젝트 수주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

-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오유틀고이 동·금 광산개발은 대규모 철도·도로건설과 도시개발 등 인프라구축 사업을 동반함. 또한 향후 타반톨고이 석탄 광산, 마다이·도르노드·거반블라그 우라늄 광산 등 다수의 광산이 개발될 예정이므로, 이에 수반되는 인프라 개발과 함께 국내외 투자가 더욱 증대될 전망

조사역 박종국 (☎ 02-3779-6673)

E-mail: parkjk@koreaexim.go.kr